

# 과수원같은 바다



김선희 글 그림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바다가 소리 내어 울 준비를 하고 있다  
물방울이 없어지는 바다가 파도가 되어 울 준비를 하고 있다

과수원같은 바다

김선희

# 과수원같은 바다

출간일 2018년 9월 18일

지은이 김 선 희

출판사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ISBN 979-11-88233-50-2

판매가 8000원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902동 616호 (하계동)

[blog.naver.com/2051426](http://blog.naver.com/2051426)

© 김선희 2018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  
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  
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30164)

## 차례

과수원 안에서.....	10
하느님과의 약속.....	11
함께 할 사막의 펭귄.....	12
풍요.....	13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 때.....	14
뚫어 뚫어.....	15
증화반점.....	16
신호등.....	17
어린 사랑이란.....	19
수선화.....	20
껌 사세요.....	21
하늘 앞치마.....	22
물방울 놀이.....	23
사랑에 빠진 요리사의 요리는 짠맛이라나.....	24
또 한번의 경험.....	25
도시락.....	26
출산.....	27

인생의 정류장.....	28
봄 동.....	30
외등지.....	31
농사.....	34
명성황후.....	36
단심.....	38
하나된 나를 찾으려는 물음을.....	40
단심.....	43
나의 열매.....	46
목적이 있는 기다림.....	47
코스모스.....	50
카망베르 언덕.....	51
감사.....	52
한 겨울 봄에게.....	54
자유 평등 평화.....	55
아픔.....	57
사랑합니다.....	58
왕의 남자.....	59
母.....	60
정월 대보름.....	61

봄 꽃.....	62
죽음.....	63
죽음.....	64
난지도 쓰레기장.....	65
삶이 가르쳐 주는 별.....	66
통일.....	68
삶이 지은 집.....	70
키 조개.....	71
갯벌에 사는 이들.....	72
날개 돌 조개.....	73
가시 굴.....	74
깃발 바다거미.....	75
피뿔 고동.....	77
모뿔 조개.....	78
왕우럭 조개.....	79
바윗 굴.....	80
비단 방석고동.....	81
깃 조개.....	82
구름 방사능 조개.....	83
돌 조개 피 조개.....	84

큰 구슬우정.....	85
북쪽 바다.....	86
남쪽 바다.....	88
벼 고동 무리.....	89
빨간 상어.....	90
넙치 가자미.....	91
날치.....	92
쭈기미 쏘중개.....	93
복어 떼.....	94
자리 돔.....	95
넙치 가자미.....	96
철갑등어 금치.....	97
흰동가리.....	98
나비고기.....	99
황새치.....	100
망성어.....	101
바다 속.....	102
바다 괴물.....	104
여덟 가지 바다 물고기가 말해준 삶의 방법	105

## 프롤로그

모래알같은 바다 속에 존재들에 묻혀 가는 인생  
사처럼 다양한 종류의 바다 삶들이 있음에 놀라  
곤 합니다.

바다보다 더 납작한 모래알이 되어 살아보려는  
인생에게 선물하고픈 바다 속의 삶  
바위처럼 단단해 져라 하고 외칩니다.

바다 향이 하늘 향해 퍼지는 잔잔함이 인생의 색  
깔로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  
바다 속에서 인생을 만납니다.



과수원같은 바다



## 과수원 안에서

앞머리가 무성하여  
풍성한 과일을 보고  
뒷머리가 대머리라  
지나가는 이 잡을 수 없다면  
삶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쳐 헤맬 때마다  
욕심이 커서 자랄 때마다  
어느 과수원에서  
아무 과일도 따내지 못한 이들을 알게 하지요  
욕심을 버리면  
가장 소중한 사과하나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 하느님과 의 약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생각과 습관을  
삶의 방식으로 얻어  
새 지식을 쌓고 뒤쳐지지 않는다면  
난 그 자리에서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이 주신 삶에  
하루를 감사로 살아지겠지



과수원같은 바다

# 함께 할 사막의 펭귄

지리산 곰탕이 사막에 갈  
괴짜 대통령  
어지러운 삶의 빨강 신호등  
사막의 펭귄  
별똥별의 밤하늘  
맑은 별빛의 명령  
세우거라 세우거라  
사막의 땅에  
한국의 꿈이  
세계의 펭귄이  
함께 공존할 곳에서



풍요

사랑의 애교

사랑하면 보고 싶다나 봐요

아기 별꽃처럼

입 벌리고 하는 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다나 봐요

마음의 애교



과수원같은 바다

#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 때

저는 모릅니다 단지  
죽음 앞에서 피웠던 벽돌 한 장  
칼날 앞에서 피웠던 절망 한 장  
이마에서 흐르던 핏물이  
한 떨기 붉은 꽃으로 피우던 때  
죄악이 교도소 앞을 가르고  
사람의 꽃이 시체의 꽃이 되는 날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 일 거라고  
혼자 돼내어 봅니다  
지난 날의 잘못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 뚫어 뚫어

책을 읽는 일이 시작 된지 다섯 살  
어느 음악가의 긴 손가락이 피아노 앞에서  
움직이던 것이 네 살  
어느 발레리나가 토슈즈를 신고 까치발을  
뛰던 것이 네 살  
모두 어린 나이에 자신들의 꿈을 꾀다  
나도 그렇다  
이젠 현실이 되어야 할 일들이  
벽이 되어 막힌다 뚫어 뚫어  
변기통 뚫어 그 옛날 지나치던  
뚫어 뚫어 아저씨들의 외침이  
새삼 기다려진다



## 중화반점

밀가루 수제비  
허기 달래던 시절  
중국집 자장면  
곱빼기 보다 많은 자장면  
그 기행 물  
여덟 그릇  
팔도를 돌아  
배달간 한 청년의 문턱에서  
발을 내딛는다  
중화반점



#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불이 다시 올 때까지  
소녀는 기다리고 꿈 꿀 것이다  
어두운 밤 빛 줄기 별똥별의 소원  
그리고 믿음  
사자자리 대 유성  
비처럼 쏟아지는 날  
시린 바람에 쫓기던 태양이  
서양에서 지나칠 무렵  
노을 몇 조각 별빛으로 채워  
불꽃놀이 하는  
동 틀 무렵 하룻밤의 느낌  
변함없이 하늘로 올라  
꿈이 되고 토성이 되고 초승달 되어  
붉은 화성 긴 꼬리



혜성 수채화 펼치는 우주의 보석  
오래되고 멋진 미술관 되어  
빛의 신비로움  
맑은 눈으로 만나 꿈으로 얻으리  
기다려지는 파란 신호등



# 어린 사랑이란

어린 사랑이라고

물음표

하트 우정 함께 밥 먹는 것

속삭임 떨리는 것 애교

귀여운 신비

참을 수 없는 것

어린 사랑이 말하였다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하는 우리

실 반지 나눠 끼고 입맞춤하는

결혼 서약서

멋들어진 사랑이야기

탄생한 어린 아이들

그것이 어린 사랑이라고



과수원같은 바다

# 수선화

자존심이 생겼어요

봄이 왔거든요

수선화가 피는 이른 봄이 됐거든요

사랑이라고 그대가 먼저 말해 주실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생겼어요

봄보다 먼저 피지 않을래요



## 껌 사세요

거리의 걸인은  
껌 사세요 를 외치며  
다가서는 사람들에게서 이기심을 배운다  
천 원짜리 지폐 한 장 숨기고  
얼굴 돌리는 이기심  
수 만원이 한끼 술상으로 떠나는 곳에서의 만찬은  
어쩔 수 없이 만원 값으로 치른 껌 한 통이 무한하여  
씹고 또 씹은 몽땅 껌  
마음이 부끄러워  
두 손이 말한다  
껌 사세요 껌 사세요



과수원같은 바다

## 하늘 앞치마

하고자 하기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행복하여라

어느 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길에 머무는 이들이 있기에  
그 아침이 주름지지 않는 것은  
태양이 뜨고 구름이 걷히는 은하수가 사는  
마을이 있음에  
푸른 하늘 앞치마는 알았답니다

비록 한 아주머니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함께 나누는 푸른 하늘 하얀 돛대가  
하늘 앞치마자락처럼 펄럭거리기 때문입니다



## 물방울 놀이

비누 방울 무지개 창가에서 날린 행복  
어린 아이 장난감  
집을 떠난 지 칠 팔 년  
한끼의 따뜻한 사랑이  
밥이 그리워지는 시간  
몇 평짜리 작은 공간이 쓸쓸해지는 시간  
꼬이꼬이 부여잡고 걸어가는 손자와 할아버지  
반짝이는 아름다움의 별자리들  
이을 수 있는 자리들이 그림습니다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어린아이 비누 방울 장난감  
후우 부어 하늘로 날리어  
사랑 받은 우리 되어 보자고  
잊히질 않길 위해 더 높이 떠도는 비누방울들



# 사랑에 빠진 요리사의 요리는 짠맛이라나

사랑에 빠지면  
중추 말초신경이 둔해진다나  
사랑에 빠진 음식은  
그래서 짜다나  
신혼의 깨소금  
그 말이 소금으로 변했나 봐  
이쁜 감정 사랑의 호르몬 균형 깨기  
사랑에 빠진 요리사의 요리는 먹지 마라  
짠맛이라나



## 또 한번의 경험

나 또 한번의 경험이 있었다  
파도치는 바다에 홀로 머문 밤처럼  
언땅 위에 눈 덮인 살얼음 또 걸었다  
돈좀 빌려주세요  
붉어진 숲은 푸르르 떨어지고  
마음은 모든이에게서 멀어져 갔다  
뼈속까지 달혀진 땀이 멍하니  
그들에게서 달혀 버렸다  
그 누구에게서도 손 내밀지 못할 숲  
달혀진 창에 말하고 뒤돌아  
파도 치는 바다에 홀로 퍼부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라고  
모든 비애들이 사라져 버리라고  
수많은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아는 사람들  
모두 사라지라고



# 도시락

기초생활수급자  
낙인 낙오자  
수치를 모르는 비애의 늪  
팔이 없어서도 아니고  
발이 갈라져서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닌데  
동정이 사는 턱 밑 굴욕  
빈민촌 쌀밥에 개떡 같은 도시락  
꽃히는 따가운 눈총  
비포장도로 뛰어든 빨개 진  
홍당무는  
개떡이 보기 싫지만  
버티고 먹어 돼  
책가방 속 도시락 젓가락은  
합창한다  
점심때만 되면



과수원같은 바다

# 출산

어미가 부른 때  
영겨 붙은 출혈  
소음이 분만을 으깬다  
살이 찢어 내는 아픔 끝  
세상 밖으로  
푸유 달리는 호흡소리  
고통의 호흡 소리 울음보가 터진다  
산모의 미소  
두려움 없는 위대함  
새 생명의 어머니  
미래가 태어났다



## 인생의 정류장

나만큼 가난하고 나만큼 굴욕적인  
삶을 참아내고 있는 아이 있느냐  
세상이 개떡같고  
묵은 쥐 갈아도  
손 잡아줄 한 명의 벗이라도 곁에 있다면  
깜깜한 미래에 고독 두렵지 않을 것을  
싫어진 향불 냄새에  
종교 멍치들  
기도 하는 여인  
논두랑 밭두렁 구불거리는 정들  
다 사라지고  
말 많은 말 맛들만 겨울잠에서 끌어내  
얼핏 깃 바람이 되어  
달콤한 봄 맛을 가끔 으깨게 하는 것을  
꾸밈없이 잘 다듬어진 구불구불한 오솔길

과수원같은 바다



나만큼 살아낼 사막의 눈이  
피핀의 왕자가  
인공 눈으로 올 것인가  
온실 속의 귀공자  
수동의 자리에  
차는 밀려 있는데 시간은 없다  
가야 할까 부다  
다른 발으로



과수원같은 바다

# 봄 동

봄 동이 트는 채소  
온실의 자연광  
각종 꽃들  
수동의 온실  
능동의 온실  
우리의 가마솥  
영농기술  
꾸밈이 없어 새콤달콤한 맛  
그대의 미소가 그랬다  
봄 동 같은 사람  
그리워라



## 외등지

나뭇가지를 건드리면 꽃집이 파르라니 떨고  
꽃가루가 부영게 흩뿌려질 때  
밤나무 농가의 최후는 숲 가꾸기  
수목화처럼 꽃망울을 터뜨리는 생강나무  
봄의 전령자 되어  
봄볕이 쏟아지는 양지쪽이 좋아  
새 애기똥풀 황새냉이포기 목련 꽃담  
곡식 주인 밭소리 들으며 높아져간 곳  
유리벽에 박힌 뽕나무의 아픔  
실이 풀 수 있을까  
외등지 굽주림의 비무장지대  
겨울나기 독수리  
야생동물의 시체  
밤나무가 뻑뻑한 야산숲  
텃밭의 고추가 탐스러운 아욱의 속갓

과수원같은 바다



밭 갓 언덕에 호박포기  
뒤꼍 돼지우리 알미운 청개구리  
대청에 누운 서까래  
그을린 천장에 삐꾸기 소리  
전자파에 탁한 소리 공기  
천차만별의 사람  
한 농촌 가정의 술한 옛이야기  
사랑방 젓소목장의 지렁이가 바글거리는 묵은소똥  
두둑한 밭 풀과 벌레  
깡그리 으깨어진 택지개발 사이 맹수들  
앵두꽃 자두꽃 눈부시게 핀 그 집 그런 봄이  
외양간 첫간 안방과 작은 방에  
풍요로운 물과 새소리로 감칠맛나는 오이를  
만들고 숨쉬는 바위를  
묵언하는 동자승의 손놀림을 고개짓을 반기는구나  
저당 잡힌 집들  
차의 배기량들 아파트 평수들의 싸움



충실히 살아  
자연의 거역 아픔의 피를 먹는 새  
겨울나기 독수리 한마리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태양이 되고 싶었어라



## 농사

청딱다구리 울고 광대나물꽃이 망울을 터뜨리는  
딱새 우는 아침  
비닐 집 속의 작은 고추 고개 내밀고  
진달래 꽃 필 때쯤 모내기하는 자연의 달력  
벼꾸기 울기 시작할 때 방안에 앉아  
봄 꽃 꽃망울 터뜨리는 문밖으로 눈만이 나와보면  
오감을 열고 있는 자연의 흐름  
겨울이 다시 오는 싸늘한 감  
바람이 촉촉한 봄을 물고  
마당엔 매화나무 꽃봉오리 터뜨릴까 말까  
눈 아프게 보았으니 낮이 가물는지  
기상이 걱정  
산림 경계 언제나 뱀씨 담글까  
헤아리는 자연의 적은 눈  
천지의 운행 자연력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어도 들꽃이 다른 형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것을  
 외딴 산 외 등지  
 외지인들이 지을 수 있는 비닐 집 속의 고추가  
 다 자라  
 붉게 물드는 뜰  
 생명력 넘치는 역농의 시력은 농군의 등에 떨어진  
 햇살을 뒷집지고 뒷동산을 만들리라



과수원같은 바다

명성황후

80년의 가부키 미국에 가다  
링컨 공연장에서 꾸넌 꿈들

2005년 쇼군 뮤지컬  
미국에 가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성황후  
민비 시해사건 미국에 가다  
마지막 황후  
뉴욕 공연장에서 꾸넌 꿈들

아리송  
젊음과 노인의 사이에선 자들이  
겪는 분노  
아직은 젊어



혼란이 끝나는 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되는 날  
말할것이다  
아직은 덜 산 이유  
명성황후냐  
홍선대원군이나  
우리는 누구인가



과수원같은 바다

## 단심

산빛나무 단단한 무게에  
고구마 황토 밭에 뛰어 노는 청개구리  
연두 자벌레  
가느다란 빗줄기에 강아지풀 비비꽃  
여치 풀무치들의 노래  
장다리꽃 노랑나비 팔랑팔랑  
빠알간 사탕 한 알  
이빨자국 찍힌 참 정 하나  
수수꽃다리 작은 은꽃  
하늘 하늘 춤  
빠알간 노을이 스러지는 어둠의 산 아래  
푸슬푸슬 보이는 갯씨와 같은 진주  
절구 찢고 가마솥에 밤이슬 삶아도  
책임이 지겨워지는 것은  
곤고함을 모르는 이들의



무화과 나무 마른 잎  
포도 한 송이 취하여  
단심 하나 결정하니 산마을에 핀  
보라색 꽃창포 같아라



## 하나된 나를 찾으려는 물음을

코른 쿠르베의 일하는 농부야  
자연의 들을 전원의 그늘을 아느냐  
마네의 풀밭 위에 피리 부는 소년이  
남긴 나체의 점심시간을 아느냐  
자연이 빛을 주고 삶이 그림자를 씹는  
장난의 숲을 아느냐

코누아르드기의 인상들을 기억하듯  
세상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원한다

빨강 파랑 노랑 야수들의 호흡  
표현이 짙은 해 산 달  
바다도 있는 곳  
삶을 아느냐

과수원같은 바다



피키소는 선이 아쉬워 공간이 된 들을  
조각난 얼굴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알아가고  
칸딘스키는 빈 공간의 순수를 그려  
색과 선과 공간의 조화를 나눈다

너는 아느냐  
자연이 이루어 놓은 대지의 아름다움을  
선이 아니어도 공간이 아니어도  
있는 곳에 있는 자연의 힘을 아느냐

에스파냐 살바도르 달리  
다리가 여섯개 코가 둘 머리가 둘  
내 자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나를 내세우고 남과 다르게 옆치락 뒤치락  
그 밑에는 무슨 샘물이 넘칠까

너는 아느냐  
황량한 들에서 수수께끼를 던지는



스핑크스의 물음들  
둘인 나에게 하나된 나를 찾으라는 물음을



과수원같은 바다

## 단심

밤낮 없이 울어댄다고 하는 하늘에서  
아침이 날아간다  
한호충(寒號蟲) 저무는 해가  
오장을 휘감고 돌아 지낼 수 없는 날들의 기우선

서화 금석화의 실행을 일본에  
김정희 2700점  
외로움이 함남 북청을 찢고 올리던 이상적 기우선  
옹방강(翁方綱)이 조선학 금석문에 추사한  
행동금석영기  
청나라 황청경해(皇淸經解) 해동(海東)금석 국화  
도의 매력  
인사동에 고증된 세한도(歲寒圖)  
왜 일본인가 후지즈카 지키시 백사 자료실  
왜 사라졌는가 태평양 전쟁아



오열하는 한인의 창을 열어라 하얀 촛대여  
타이완의 신채호 필리핀의 안창호  
싱가포르의 홍명희 중국러시아 미주 동남아시아  
독립하자 독립하자 외친 혼들  
한세기에 사라져간 아픔들  
타이완 일당의 장인 구니노미야 구니히크 암살자  
별초 홍명희 그는  
시대의 종명하열사 인가  
아님 한인의 노예였는가

필리핀의 안창호 태국 인도네시아의 조선청년들  
태평양전쟁의 징용  
포로수용소 현대판 포로수용소  
지금 이곳은 한국이 아니다  
1994년 12월 고려의 독립청년당  
손양석 민영학 노병학 암바라 의거는  
독립의 대한민국  
정복의 인고인 것을



감히 일본이 태국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싱  
가폴 미주 ...

이것들이 우리강토를 찢고 찢어 흔적조차 말리는데  
이 고향 산천의 마른 가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군과 싸우던 공작대들은 다 어디에  
자존감 강한 입술은 수선화조차 피울 수 없도록  
입을 다물었는가

자유 찾던 체류 탄은 아웅산에서 멈추었고  
자유를 찾고 헤맨 세월은 혼란과 방탕으로  
끝이 나고 남의 나라 땅이 되어버린 듯  
한인이 설 곳이 없구나

부끄러워라 조상아 대한민국아  
부끄러워라 삶아

이 봄 안개꽃답게 피워  
나 된 조국 만들라고  
21세기가 웃는다  
하나된 단심



## 나의 열매

내 어미 무덤가에 핀 할미꽃조차 없는  
가루 꽃 된 나에게  
질긴 인연 값으로 모진 고통을 안겨주던 이  
하나 있어  
아직도 나에게  
감정 아닌 감정으로 삶을 쭈시는 가지  
жат 가지가 그리 높아 잣 열매가 그리 많은지  
난 내가 나 된 자리에서 그 가지를 잘라내고  
그 열매만 얻으리  
시간이 가고 노력이 가고 삶이 가는 동안  
내 어미 흰 가루 꽃 날리는 강가에서  
그 잣 열매만 취하리라



## 목적이 있는 기다림

수선화 달 뿌리 같은 매일 꽃밭에  
깊으로 싸매주고  
장미로 옷을 벗겨 햇빛을 보게 해 주는  
꽃대를 몰로 꽃망울을 터트리는데  
꽃봉오리가 봄을 기다리며 대견스럽게  
흰 눈을 소담스레 바라보고 있다

연하디 연한 수선화 꽃잎에  
막 피어난 수선화 목이 꺾여서 짓밟히던 곳  
철창 같은 가시덤불  
고운 흙에 하이에나 떼 같은 발자국  
한 개의 이기심  
영겨 붙은 피딱지  
갈비뼈 얼굴에 찬 바람 한줄기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과 검은 눈동자에

과수원같은 바다



비추인 화사한 벚꽃 꽃잎  
촛불처럼 겨우 이어져 가는  
벚꽃을 닮은 눈송이  
슬프도록 하염없이 커지는 유리의 성  
그곳엔 너를 기억하여  
시간이 멈추지 않은  
상처 가득한 언 얼과  
눈 무덤가에 서 있는 기다림이 있다

친절은 베풀고도 낯선 타인처럼  
되어 버린 사랑 없는 곳에서의 하루  
평생을 이기심으로 키운 자신들의  
삶은 버리지 못하는 아키다 견 한 마리  
굴뚝의 연기는 늘 저녁이 되면 온 마음을 피우고  
삶의 흔적을 알리지만  
받을 줄만 아는 이들의 발자취는  
젊음에 상처만 두고 목적 없이 어지러이 헤맸다



기다림은 목적은 있기에 행복하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기에 행복하다  
겨울이 봄을 기다리듯  
여름이 가을을 기다리듯  
각각의 꿈들이 활짝 핀 꽃들이 되어주길  
바라는 영원한 기다림엔  
각각의 목적이 있다



과수원같은 바다

##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보면서  
배추 흰나비처럼  
날아든  
낙타 풀 사랑을 키웠다



# 카망베르 언덕

흰 곰팡이 맛  
치즈의 언덕  
백향목 길 아담한 통나무림  
프랑스쥐와 두 꼬마 인간  
치즈 통에 들어가 미로 찾기 하는 이들의 삶  
두려움을 잊고  
항상 변화를 찾고  
도태하지 않는 썩은 치즈가 되지 말기를  
야생오리로서 말한다  
언덕이 있는 치즈



# 감사

나 너무 어렵고 힘들어 가끔은 주를 찾았고  
나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주의 씨를 찾았고

나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를 알리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나를 알리려고  
또한 나를 거짓 증거하는 이들에게 오해의 근원을  
부셔 버리려고  
싸우지만 좌절하고 낙담하여 쓰러질 때가 많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소리로  
찾는 주님은  
내게 한걸음의 길을 두 걸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봄 햇살이 따사로움 같이 나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니 평안이 그 안에서 꽃을 피웠고



남모르게 사랑하던 일들과 꿈들이 하늘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그 날개를 펴득거려 주어  
기쁨을 찾았고  
아픔의 눈물이 말랐다  
이젠 기쁨의 눈물이 샘물처럼 솟고 있다



과수원같은 바다

## 한 겨울 봄에게

하늘로 솟는 반가지는 높을수록 잣다  
하늘로 솟는 사람들의 마음은 높을수록 깊다  
푸른 하늘이 넓은 만큼

한 겨울에 쫄글거리는 마른 잎은 눈 속에서도  
포도 나무와 가지처럼 매달려  
생명이 길다  
어디로부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겨울 내내 가시 끝에 매달린 잎은  
짙은 잎으로 자라나  
봄이 짝 차 오면 연두 빛 마음으로 변한답니다

잣 가지 높은 마음 봄이 어린 마음  
모질지 못해 뿌리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지혜와 배움을 얻도록  
한겨울 봄에게 고한다



## 자유 평등 평화

자유야 네가 어디 있느냐  
민주주의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구나

삶이 고단하고 물질이 없어  
각종 회사들에게 보낸 이력서만  
우편물 영수증으로 쌓이고  
아는 이들의 아우성에  
내 자신을 끼어 넣어 보지만  
무능도 아니요 지혜와 지식이 넘쳐도  
사회가 나를 외면하는구나

평등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법치주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 받는 자유도 유린당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도 사라지게 하는  
만남이 평등마저 외면 당하게 하는  
얻을 수 없는 평등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 사회가 나를 외면하는구나

평화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주인의식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야 하는  
기초생활조차 없는 땅에서  
밥 한술 뜨는 평화도 없어 헤매고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기본조차 찾기 어려움은  
이곳에서 나는 외면 당하고 사는구나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이 사회에서 살아 내노라



# 아픔

땀구멍 한 알 한 알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쁘다 하는구나  
나는 목구멍 헛바닥 속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사랑하는구나

애닦은 이네 깃발은 소리 없이  
눈발 쌓인 바위산에서 나무되어 아우성치는구나



과수원같은 바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봄 햇살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샘물처럼 솟아  
주님 만나서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합니다 가을의 저녁 놀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두 날개로 오르는  
주님 만나 기쁨이 넘칩니다



# 왕의 남자

몸짱이여  
밥만 나오면 다 팔아  
몸도 팔아  
자존심도 팔아  
영혼도 팔아  
스크린 퀴터  
미디어 세계  
열광의 관객  
몸짱이네  
우리 영화  
동성애도 고민할까  
자존심은 좀 지켜보라



# 母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모유를 먹고 자라라고  
어머니 젓가슴 볼록  
보조개 두 개  
바늘에 실 끼울 때 눈이 좋아야 해 두 눈  
궁지에 몰릴 때 어깨 폼으로 들어가야지  
입구  
좌우에 한 쌍씩 붙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야지  
콩팥  
어미니 젓꼭지 두 개 어미 모였어라



## 정월 대보름

화왕산 억새 태워가  
미라지의 불쇼처럼  
한국의 라스베가스도 저녁은 황홀했다  
한국이 없어져가는 정월 대보름  
눈 섯이 하얗게 변할까 봐  
잠을 잘 수 없었던 지화로의 옛이야기  
사라져 버리고  
화왕산 정산 5만평 억새 밭의 불덩이  
활활 미국 판 정월대보름이라  
부럼 없는 하루 정월 대보름



## 봄 꽃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 보았느냐  
천천히 다가서는  
얼음 속의 강함  
복수초를 보았느냐

낮의 햇볕을 받고 목련의 꽃눈을 키우는  
마음을 보았느냐  
나는 겨울 속에서 보았다  
아름다운 진실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얼음 꽃 복수초 한 잎과 목련의 몽우리를  
선물하고프다  
봄 꽃 된 나



## 죽음

물에서 와서 물로 가느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느냐  
한 번 가면 올 수 없는 곳  
마음이 가라 앉는 구름 낀 하루  
갈대가 흔들리는 강  
흩뿌려지는 흰 뼈 가루  
울음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은 이유  
이젠 갈 곳도 없어라  
나그네 된 자들의 마지막 절규



## 죽음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바다는  
그만큼 줄어든다  
사랑도 그만큼 줄어든다  
영원한 희생  
부모라고 했던가  
사람랑 담은 눈빛  
이제는 떠나간다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바다가 소리 내어 울 준비를 하고 있다  
물방울이 없어지는 바다가 파도가 되어  
울 준비를 하고 있다



## 난지도 쓰레기장

낙하하던 폭포가 떨어져 내리는 곳  
달리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들에는 들짐승들이  
생활의 난지도 땅을 골프장으로 세우고  
서울시를 끝내버렸다  
미로 같은 새 길이 열린다는 삶 속으로  
난지도 쓰레기 더미로 들어간다  
고를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찾아내야 하는 그 무엇을 새기기 위해



# 삶이 가르쳐 주는 별

세초부터 세말까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 까려도  
들이 풀이 나지 않는  
네가 먹고 배부른  
마음의 미혹  
멸망

평안의 땅 열매의 땅에  
좋은 사람은 끊고 넘치는  
상수리 나무 곁  
가시 딸  
모두 사랑한 설음 박이 쌓은 땅  
불꽃



안식이 마시는 어떤 잡류  
두려워하며 행하는  
마음이 저미는 저버린 것들  
몽(夢)속에서 얻는  
유혹

다양한 인생  
다양한 삶의 방법  
깊은 밤 별이 떠 있다 유유히



과수원같은 바다

# 통일

반쪽나라 짓눌린 사채들  
운명이 반국적(半國的)  
도라지 꽃 살아 있는 무덤  
삼각 무역 총체적 자주  
콩물 국수 담아먹는  
씨알 같은 중심 조직  
흰 손수건의 핵 조직 변혁  
반끼 농성체제  
협동 농장  
봄 바람 비 바람  
도시 빈민  
자책 경쟁의 한계  
감자국 속 삶이 먹는 불 바람  
무속화된 평화  
동 베를린 범민현

과수원같은 바다



삶의 지상이 갈라 놓은 땅  
DNZ에서 농무의 탈춤을 추고  
마을곳과 풍물 민요들을 부른  
대동놀이 한번 벌려 볼까  
둘이 하나되어  
반쪽나라 하나되어  
바라고 바라는 맘 몸에 새기는



과수원같은 바다

## 삶이 지은 집

애송이들이 달려든 바위틈  
갈치 은빛구슬로 이어지는  
마음의 귀중한 사람  
느리게 길게 웃으며  
삶으로 사는 마음  
긴 발 바다거미  
산사에서 지은 집 이고  
방안에서 지은 집 이고  
바다에도 지어본 거미집  
그 깊이 깊어 볼 수 있으려나  
나의 사랑하는 맘 볼 수 있으려나



## 키 조개

얇은 바다  
섀플 바닥이 드리나는 모태 진흙에  
강 어귀 모양  
바다 깊이도 얇아  
가지랑이에 찬물 떼  
어린아이 오줌 싸게  
이불에 오줌 싼 사연  
대한민국 한번에 그려 놓은 지도  
키 조개 머리에 이곤  
소금 한 대접만 받아 주렴  
바다도 얇은데  
바다가 풍부한 불가사리 산호로  
낄낄 꼴꼴 웃으며 부드럽게 하는 말  
다음부터 이불에 오줌 싸지 말아라  
10살이 키워준 키 조개 한 마리



## 갯벌에 사는 이들

갯벌에 사는 성대 아귀야  
무당 게 구멍들마다  
한쪽 끝에 손을 넣어  
물린 자국  
가만 있자 가만 있자  
두 구멍에서 들락 날락  
양쪽 끝에 손을 넣어  
잡고 또 잡은 무당 게  
모깃불에 밥 말아 먹고  
간장에 게장 삶아 먹고  
왕새우 삶아  
바닷가 사잇길을 헤매던 마음  
가다랭이 만새기 청상아리  
꼬리지느러미 꼬리를 묻고  
흙 갯벌을 발로 밟는다  
우적우적 소리 나는 맛있는 삶



과수원같은 바다

## 날개 돌 조개

날개 달고 바다를 날고파서  
목으로 간 사연  
살아서 귀에서 울리라고  
그럼 안다고  
삶이 주는 것들을 하고  
내게 말할 건 이  
날개 달고  
정말 날 수 있을까



## 가시 굴

나를 지키는 바닷가 바위틈에  
파도가 거칠게 밀어닥쳐  
살기 어려운 생 하나 있어  
가시 굴 이라나  
여기 사는 무리는  
숨어 보기를 좋아해  
누군가 툭 건드리면 자신의 가시들이  
툭 툭 툭 사라진단다

나를 만지는 이들이  
알게 되는 상처들마냥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사연들  
이 바다는 바위틈에  
이 모습을 지키며  
살아 간다



# 깃발 바다거미

깊은 바다 깜깜한 흙 안에  
태양빛이 필요할 때  
바닷물 차고  
압력을 차고  
긴 다리로 걸어 다니는  
방거미 봄거미 나들이 나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들꽃해삼 돌해삼 흰해삼  
비단 백합꽃 피고지는  
긴 잎 자랑하는 풍선 뱀장어  
주머니 뱀장어  
수심 깊은 봄에 찾아 왔다네  
북방 새의 수염 달고  
염치조개 알고 사는 마음  
수염만 알아도



못난 삶 이기어낼 수 있으려면만  
아귀 볼 주둥이 도깨비  
라부카의 무서움  
큰 이빨 들어내고  
라부카 상어 민정어리  
긴 발 게 되어 육지로 육지로  
바퀴자국 수렁  
돌고 도는 인생의 바다에  
샷별 위에 노인 방석 고등어  
홍산호 피워 살아가게 하노라



과수원같은 바다

## 피뿔 고동

모래톱 파도 치는  
늘 푸른 바닷가  
모래알이 굵고 조개물이 간조 대를 따라  
떨어진 바다  
밑 모래에 바위가 많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깃가에 파도 쏟아지는 소리 하나 울려라  
사랑스런 바다에게  
편지 한 알 모래로써 보는 삶



## 모뿔 조개

모래톱에 사는 모래 속의 쌍패류  
껍데기가 두이어서  
무리 먹고 사는 고동소리  
얽은 추운 바다에 숨이 차도록  
긴 눈을 한 삶의 기용으로 뉘  
조개 한 마리  
젓 가루로 치어 끌어 올린다  
추운 겨울날 갓 사장에서



## 왕우럭 조개

조개가 되고 나서야 밀물 썰물의  
마음을 알았다  
깊은 바다를 알고 나서야  
조개의 반짝임을 알았다  
모아 모아 끌어낸 진주 알처럼  
유난히도 번쩍거리는 걸쭉질에  
비단 목걸이 하여 걸고  
내님 만나러 갈려 한다  
왕우럭 조개 모임으로



## 바윗 굴

어릴적 너른 바다가 그리워  
바다로 갔더니  
낮선 타인들만 있더라  
비단 반석고동  
갓 조개 구름 방사능 조개  
부처 가리비  
어릴적 너른 모래 사랑이 보고파  
바위틈을 돌아보니  
아는 타인들만 있더라  
가시굴 가시고동 바윗굴  
개굴 주름돌 조개 복털 조개 등



# 비단 방석고동

바닷가 바위틈서리  
파도가 거칠어지는 살기 좋은 곳에 사는 무리  
생활이 부채 살처럼 옮겨 다니는 곳  
비단길 따라  
비단 방석고동



## 깃 조개

거칠게 밀어닥치는 샘  
살기 어려운 곳에  
깃 조개 한 쌍  
은빛 달고  
나전칠기 장롱으로 온다  
바다가 방의 가구 된 사연



# 구름 방사능 소개

구름처럼 너른 바다를  
옹겨 다니며 사는 것들  
퍼지듯 물리듯 가득 차는  
그의 시선  
오늘도 예사롭지 않아 살핀다  
방사능 소개



과수원같은 바다

## 돌 조개 피 조개

밥 반찬 밑 반찬이  
천지에서 웃는다  
밥상머리 바다머리  
하늘 구름 사이에서  
호반의 거울에서  
웃고 또 웃는다  
긴 부채 살이 새로운 기쁨  
간장양념에 알맹이 넣고  
밥 한술 뜬 마음  
담복의 정  
우리네 온정이어라



# 큰 구슬우정

둥글둥글 한 몸짓 달고  
삶을 둥글둥글하게 사르라고  
모래 밭에서 입맛 내민 것들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듯  
등만 보며 웃고 떠도는  
반들 반들거림  
나 여기서 바다의 음성을  
알고 울고 웃는 사연을  
만들어 보았다  
빙그르르  
빙그르르 도는 물에 꼭지 몰래 한  
엄마 아빠의 사랑  
내가 태어났지  
오늘도 타지의 침략들 앞에 부풀어 오른다  
복어 떼 사람 떼 인생



## 북쪽 바다

수은이 커지는  
미역이 우거진 남쪽 바다에  
염분 물고기  
체액을 바꾸며  
물고기가 된 사연  
노랑 가오리 줄 가자미  
장미 우럭 중치  
역류하는 무리로  
거꾸로 오르는 백 연어  
털탑고동 왕게 왕도새우  
대구알들의 밥상 머리  
먹고 씹고 마시는 메운탕 거리  
명태 청어 임면송어 까나리 횡감  
짚이고 짚여서  
먼 바다를 이룬 여기



산 사람의 바다가 있노라  
이곳이 좋아 나 사노라  
내가 사는 이유



## 남쪽 바다

수은 커가고  
산호초 우거진 남쪽 바다에  
세발 작설치 돈 달라고  
돈 개미 된 사연  
긴 허리 가늘게 핀 긴 맛  
삼키는 긴 발 바다거미  
남쪽 바다야  
야광조개 번득번득  
홍치 왕조부  
황다랭이 청새치  
산호에 울고 울리고  
무리로 무리로 온 사연  
몸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수온의 바다  
이곳이 좋아 나 사노라

과수원같은 바다



## 뼈 고동 무리

바다가 터전이 된 우리는  
바다에서 생호흡을 하며  
태풍의 날들을 잠재우고  
또 깨운다  
해저 감시  
미역 바닷말의 바다 밑 밭  
바다 밑 목장  
도망치지 못하게 쳐 놓은 커튼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어린생들  
깊은 바다 진흙이 사르라고  
해준 터전  
바다 조개들



## 빨간 상어

기생이란 아지랑이  
봄의 아지랑이  
가오리나 상어에 몸에 달라 붙어  
함께 나는 인생  
어찌다 보면 그렇게 살아지기도 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처럼  
친구도 동료도 친지도 필요한 것을  
서로 돕고 공존하는 삶의 풍요가  
넘치는 사회 바다가 되어지기를  
늘 푸른 마음으로 기다린다네  
빨강 상어 지느러미



## 넙치 가자미

삶이 삶대로 생이 생대로 이어가듯  
그 나뉠대로의 방식이 있는 것들이  
모래의 색깔로  
바위의 색깔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몸 색깔로 가는 곳마다 자신을 가리는  
알지 못하는 속마음  
숨고 숨기고 우습게 보는 이기심 덩어리들  
들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웃어라 이겨라 힘내라  
인생이란 이런 것이리라



# 날치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바다에서 날고  
바다를 향해하는 배  
하늘 떠 있는 구름조각들  
날 수 있을 때 날고  
떨 수 있을 때 떠라  
삶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힘겹게 싸워 보아라  
실패는 긴 인내와 함께  
성공의 열매를 얻으리라



## 쭈기미 쏘증개

큰 눈 긴 가시 달고  
악이여 오라 외치는 독 품은 것들  
바라바라 악쓰며 울고 떠드는  
못난이 인생

얌전하고 축스럽고 부드러운 슬기로  
안정을 찾아가는 새로운 독  
악이 와도 감사하는 새로운 독  
선이오면 감사할 줄 아는 새로운 독  
바다 속 삶



## 복어 떼

건드리지 말아라 침략하지 말아라  
풍선처럼 부풀어 텅벼드는  
복어부대 바다 및 천하무적  
대장군님 나가신다  
앞 볼 옆 볼 눈이 보이지 않아  
팅기며 부딪히며 깨어져 상처만 남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인생길이기에  
복무리 되어 거북 무리되어 인생을 느리게 가볼까  
울고 웃는 인생도 길기에 천천히 가고 싶다



# 자리 돔

산에 가면 산의 가지가 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가지가 있다 산호라고

산에 가면 산가지에 새들이 산다  
바다에 가면 바다 가지에 자리 돔들이 산다



## 넙치 가자미

숨은 자 모래 속에 숨은 자  
숨은 자 현세에도 있다  
숨어서 무엇을 찾는지 바다 속  
숨어서 무엇을 갈취하는 인생 속  
묻는 질문마다 납작하여질까  
알고 싶고 보고 싶은 숨은 자의 비밀들  
깨알 같은 모래 속이라 보이질 않아  
알고 싶은 모습들



## 철갑등어 금치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올빼미 바다 속에도 있어  
낮에는 바위틈서리에 숨고  
밤이 되어 먹이를 찾는 금치들의 사냥  
울고 웃는 세상에서 뒤바뀐 자리  
정상대로 살아야 건강한 것을  
업체라고 떠도는 무리 떼  
바다 속 금치 같아  
사회에 묵은 김치 같아  
부조리 없애고 싶은 마음  
밤은 낮의 세계가 그림다



과수원같은 바다

## 흰동가리

약하고 여린 인생 말미잘 더듬이 속에 숨어  
밖을 내다보니  
이 사회가 무서워 고개조차 내밀지 못하는 아픔에서  
힘겹게 발을 내딛고 있는 삶 하나  
공생이라 불리는 인내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병폐를 이겨내리  
함께 가는 사회 여리고 약한 이들  
함께 가는 사회



# 나비고기

산호초에 사는 차가운 나비고기떼  
바다 밑에 납작하게 붙어사는  
가랑 나비 참치 가오리를 아는지  
차가운 바다에 나비고기 한 쌍  
한 삶으로 이렇듯 다양하여라  
해초들이 웅크하는 작은 자갈 산호도  
그 바다에 나도 산단다  
꽃 바다에 사는 나비처럼  
그 바다에 나도 산단다



과수원같은 바다

## 황새치

해류가 흐르는 몸을 따라  
길다란 위턱을 밀고  
참치와 청새치를 덮치는 물결  
빠른 속도로 밀어낸 몸통들  
새무리 바다에도 있었네



# 망성어

산란관 따라 찾아가 보니 조개 몸 속  
남편 몰래 아내가 숨은 곳  
조개 껍데기 안  
아이 낳고 살다가  
스스로 먹이 찾아 나온 세상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빛 언어  
살아서 고달픈 바다여



과수원같은 바다

## 바다 속

뗏목아 로마의 호화야  
트라야 누스 황제가 웃는 길  
지중해 인도양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장사 배 싸움 배 바이킹  
콜롬부스의 육지 산타마리아 호  
마젤란의 대서양  
열린 바다  
쿠크의 뉴우질랜드 해안  
원주민들의 흔들림  
뛰노는 캥거루 안의 안주  
현대인들의 말장난  
찰흙의 해저  
다양한 플랑크톤이 사는 여유  
농어의 삶 정어리 유기물  
사는 게 다 그런 것인가



힘센 것이 약한 자를 잡아 먹는  
망할 놈의 사슬  
얼키고 설켜서 이겨내기 힘졌구나



## 바다 괴물

인류의 산호초들이 묻힌 바다 말  
사르갓소에 묻힌 인생들  
시이저 편트 인어들  
듀우공 스텔러들의 뗏목  
사라져간 지층에 지협  
산호들의 시체들이 늘비하고  
얼굴들도 다양하여라  
괴물들  
현세에도 있어라



## 여덟 가지 바다 물고기가 말해주는 삶의 방법

### 상어

날카로운 이빨 거친 성질이  
먹이를 뜯어 먹는 바다에 산다  
힘이 넘치고 잔잔한 몸짓이  
겨울 속 소나무의 흔들림 없는 바람 같아  
미동하지 않는 무서움  
바다지층을 쌓는다

### 가다랭이

넓은 바다 조류 타고 헤엄치는  
가다랭이 방어와 생김에  
몸이 물결에 따라 흔들릴 때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갈대가 바다에도 있어  
함께 어디론가 너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금치

모리 땅 바다 밑 세상에서 긴 생  
바위틈 사이로 자신을 몰아 넣고 재잘거리는  
사잇길 쉼터  
납작한 바닥에서 찾아내어야 하는  
해초들의 한들거림  
삶의 사잇길에도 틈은 있다  
노력하다 보면 찾게 되는 사잇길이 있다

나비고기

산호초 사이를 빠져나간 등근 주둥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내의 이쁜 색깔을 안고 도는 즐거움  
그곳을 빠져 나오는 힘  
그에게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을  
짚는다



넙치 가자미

언제나 바다 밑 모래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

바다보다 더 납작한 모래알이 되어

세상이 나를 바라본다

내가 세상을

세상이 나를 바라본다

그것이 인생임을 서로 안고 돌고 있다

망상어나 감성돔

바위로 된 바닷가 바위에 사는 돔 모양

둥근 몸뚱이 무리지는 바다의 떼들

굳은 신념과 인내가 뿌리를 내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야 할 우리들의 삶에

바위처럼 큰 바위처럼 살고 있다

빨간 썬벵이

깊은 물 바다에 아귀나 바위

빨간 썬벵이의 하루



과수원같은 바다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입이 하늘이 된 사연  
벌리고 씹고 머금은 바다 물방울  
삶이 이렇게 싱그럽기만 하다면  
권태가 찾아올 것을  
가끔은 찡그려도 보았으면  
헤엄을 치지 못하는 지느러미로 걷는 인생  
느리게 가고 싶다

천천히 느리게 가라고 거북이라 부르는  
바다의 또 다른 내기  
토끼는 빠르나 인내를 모른다



과수원같은 바다



천천히 느리게 가라고 거북이라 부르는  
바다의 또 다른 내기  
토끼는 빠르나 인내를 모른다